

“다도에서 생활禪 배운다”

화제의 프로 불교TV '차문화 산책'

불자 탤런트 김혜정 진행
차의 역사·예절등 소개
초의선사 일대기도 방영



▷ 차禪一味. 다례법 시연을 통해 차의 묘미를 느끼고 있다.

는 요리 '차와 관련된 선사' 등의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을 차의 세계로 안내한다.

특히 '차와 관련된 선사' 편에서는 중국차에 대한 애호로 가독자 있던 당시의 풍토를 타파하고 동다(東茶) 즉 우리차에 대한 우수상을 널리 알렸던 초의선사(1786~1866)의 일대기를 소개해 보는 이로 하여금 다선일미의 세계를 만끽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문화 산책'을 제작한 양홍식 PD는 "다도와 다예 등을 포함한 한국의 차문화에는 불교 전통문화들이 많이 스며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 다도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속에 내재돼 있는 불교의 역할도 동시에 알리겠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기자(jkim@buddhapia.com)

BBS 지방국 프로그램
교양·포교내용 강화

대구, 부산, 광주, 청주 등 4개 불교방송 지방국들은 15일 교양 정보와 포교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부산BBS=△BBS 부산의 아침 (월~토, 08:30~08:55) △3시의 가요희망곡 (월~토, 15:05~16:00) △반야의 샘(월~토, 16:10~16:40) △일요일법문(일, 16:05~16:50)

■ 대구BBS=△불국도의 아침(월~토, 08:30~08:55) △우리들의 찬불가(월~일, 18:15~18:20) △5시뉴스(월~토, 17:00~17:10) △일요일법문(일, 15:05~15:20)

■ 광주BBS=△출발, 정보데이트(월~토, 15:05~16:00) △우암산 전망대(월~토, 16:10~16:50) △BBS 일요초대석(일, 15:05~15:20) △일요일예배(일, 16:25~16:50)

■ 광주BBS=△빛고을 건강교실(월~토, 15:05~15:20) △행복한 노래마을(월~토, 16:10~16:50) △우리소리 한마당(일, 16:05~16:50)

신행수기 당선작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참회의 눈물①

나는 남편이 옆에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다. 남편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제발 이혼해서 그만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집착과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라 재삼 꺾어먹는 노릇인데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빛 속에서 사는 나의 마음 고성과 육체노동은 끝이 없었다. 남편만 믿고 살아가는 알거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조그만 장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하게 되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종교란 것을 갖게 되나 보다. 점도 많이 보았고, 재수있게 해 준다는 말에 귀이러는 것도 몇 번 했다. 그러나 아무리 없는 돈이나마 갖다놓고 지극정성으로 빌어 봐야 소용없는 일인 것...

나는 잠시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다. 1년 넘게 다녔는데 의외로 미신적 요소가 너무나 많아 정나미가 떨어져 다시 절로 돌아왔다.

바쁘더라도 멀리 산 속에 있는 절을 정해놓고 다녔다. 그동안 여러 불서들을 읽었기에 그대로 한 번 실천해 봐야 하는 생각에 열심히 다닐 수 있었다.

사업성취기도, 두아들의 수능백일 기도도 하고 산중기도 등 열심히 기도에도 몰입했다. 경을 열심히 읽으면 소원성취 한다는 말에 <천수경>을 매일 아침마다 읽고 정근도 했다. <금강경> <관음경> <반야심경>도 1년 넘게 사경을 했다. 먹을 갈아서 붓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 가노라면 모든 잡념들이 사라져 밤새워 쓸 수가 있었다. 장사를 끝내고 나면 12시. 집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반야심경> 사경을 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다. 아이들 도시락까지 학교 보내고 또 절에 다녀와서 가게 나가 장사를 하면서 꾸벅꾸벅 졸던 일들. 어디서 그런 신심이 났는지 생각해보면 신기하기만 하다.

절에 기도하러 가기위해 아침마다 샤워하는

일이 하루일과가 되어버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지 않고 절에 가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저 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불법에 대한 갈증은 더욱 심해졌다. 이 절 저 절 마구 찾아 다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인연을 만났는데 순간 '이! 이것이 부처님 가피로구나' 하는 탄성과 함께 가슴이 평했다. 내가 다니는 절에는 보살 같은 마음을 지닌 불자가 있었다. 그 불자가 어 느날인가부터 선지식을 만나 공부하러갔다면서

보이지가 않았다. 나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 속에 일어났다. 바로 그것이 발원이었다. 길에서 마주친 그이를 붙잡고 나도 그 공부하고 싶으니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

이는 내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않더라 가게 문을 몇 달 닫던지 그만두던지 한 후에 찾아오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기에 장사를 좀 늦게 시작하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아직껏 그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복으로만 빌어왔던 기도가 헛되지 않아 좋은 인

연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내가 기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공부하고 기도한 덕택이다. 그 어렵다고만 했던 불교가 알고보니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니 분명히 어렵긴 하다.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쉽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엉터리였을지언정 너무나도 열심히 부처님께 매달려 살다보니 업장소멸이 되었기에 조금이라도 부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하니, 내게도 이런 광명이 있을 줄이야.

오늘도 부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한다. 자비광명의 가피에 힘입어 좀더 오묘한 불법의 세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인공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점 보고 굿하고 교회기도 어려운 집안사정 안풀려 불법만나 밝은생활 시작



그림·이준석

종파 법계 검소함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가사

장삼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밑으로 걸쳐 입는 가사는 원래 내버린 옷 또는 죽은 사람의 옷을 모아 108염주를 본떠 108장을 모아 꿰매어서 몸에 걸칠기에 '분소의(眞掃衣)' 또는 '납의(納衣)'라고도 한다. 이는 수행자의 검소함과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 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인도처럼 더운 지방에서는 이것만으로 몸을 가리었기에 법의라 하는데 우리나라, 중국 등 추운 곳에서는 가사 속에 장삼을 입었다. 또 가사는 후대에 내려오면서 종파와 법계에 따라 그 색과 형태에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위 그림은 남장사 감로탱화로 화려한 색깔의 가사를 볼 수 있는데 색상에 따른 지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지오도 작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앉아있는 12명의 사도가 가사 비슷한 천을 두르고 있다. 학림(예천 불화암 주지)



▷ 남장사 감로탱화(부분), 1701년작.



▷ 지오도작 '최후의 만찬' (부분), 1304년경, 스페인 바티카 박물관 소장.

역·사·속·스·로·떠·나·는 죽·음·기·행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저자 : 맹란자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담은 글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 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강자, 육상산과 양수인, 소강철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 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 5.5.

도서출판 쉐콘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①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남산의 불산을 보며 웃네